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 2 디지털 충격

## 1 인구절벽



49.6%

전국 228개 시·군·구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22년 113개(49.6%)

## 3 지역소멸

###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책환경	핵심 개혁과제	목표
인구절벽	국가책임 교육·돌봄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충격	디지털 교육혁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으로 잡자는 교실을 깨우겠습니다.
지역소멸	대학 개혁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으로 지역과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행복한교육

# 05

vol.490 2023 MAY



### 02 네 꿈을 펼쳐라

한국팻고등학교 플라잉독(Flying Dog) 제2의 개통령 꿈꾸며 '오늘도 훈련 중'

### 06 에듀피플

정성국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 초등교사 출신 첫 수장... '7대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

### 38 교육웹툰

AI 활용 디지털교육, 맞춤교육시대를 열다~

COVER STORY

부산교대부설초(교장 이성주)는 지난 2년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는 시범학교로서 온라인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일찌감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진행해 왔다. 영어 수업시간, 학생들은 크롬북으로 전자칠판과 화면을 공유하며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터치'한다. 사진은 어학실에서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을 듣는 5학년 학생들.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이경화, 정성경, 서지영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5층 (주)전우용사촌  
www.happyedu.moe.go.kr  
eduzine21@gmail.com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

특집

디지털 기반의 '맞춤 교육' 시대

- 16 한 명 한 명의 학생에 초점을 둔 '맞춤 교육'을 희망하며
- 20 시공간을 허무는 창의력 '뎀백' 맞춤 수업
- 24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 27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학교'에서 원하는 수업 듣는다
- 3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구현
- 34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Bett 2023'을 가다



24

- 02 네 꿈을 펼쳐라  
한국펫고등학교 플라잉독(Flying Dog) 제2의 개통령 꿈꾸며 '오늘도 훈련 중'
- 06 에듀피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 초등교사 출신 첫 수장... '7대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
- 10 교실혁명  
인공지능 수업 시리즈 ② 우리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그랬어요!
- 38 교육웹툰  
AI 활용 디지털교육, 맞춤교육시대를 열다~
- 40 교육자치시대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세계화 프로젝트 43년 전 그날을 기억해주세요!
- 44 이달의 교육뉴스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하



02



06



46

- 46 진로직업인  
정원 디자이너\_ '아이디얼 가든' 임춘화 대표 "아날로그 감성으로 오롯이 피워내는 행복이죠"
- 50 교육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활동에서 길을 찾다
- 54 일상의 심포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교동도 시간 여행
- 58 이야기 인문학  
세계의 어린이날
- 60 현장중계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 62 명예기자 리포트  
가까이 다가온 미래, AI교육 선도학교 고촌초등학교를 가다
- 64 예쁜 우리말  
축약이 일상이 된 10대



54

한국펫고등학교 플라잉독(Flying Dog)

# 제2의 개통령 꿈꾸며 '오늘도 훈련 중'

경상북도 봉화군에 자리한 한국펫고등학교(교장 김동상)는 전국에서 유일한 반려동물 전문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전국에서 모인 132명의 학생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꿈을 키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플라잉독 동아리는 최고의 반려견 훈련사를 목표로 한 학생들이 모인 자율동아리이다. 초록빛 백두대간 자락 안에서 그보다 선명한 꿈을 꾸고 있는 플라잉독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 반려견 훈련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모 보더콜리인 줄리에게 뽀뽀이 공을 던져주고 있는 남은지(3학년) 학생의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 남은지 학생은 “지난해에 줄리와 함께 출전한 첫 어질리티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반려견이 테이블 위에서 5초간 멈춰 있어야 하는 난도가 높은 종목이었는데도 잘 따라와 주었다.”라며 “그 순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느껴져서 1등을 한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했다.

플라잉독은 어질리티와 같은 반려견 스포츠와 반려동물 행동 교정 등 반려견 훈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2022년에 만든 자율동아리이다. 어질리티(Agility)는 디스크독(Disk Dog), 도그 댄스(Dog Dance)와 같은 도그 스포츠의 한 종류로서 반려견이 여러 개의 장애물을 통과해 결승점까지 도착하게 하는 반려견 장애물 달리기라고 볼 수 있다. 허들을 뛰어넘는 점핑, A형 프레임을

활용한 도그워크 종목, 터널, 12개의 봉을 지그재그로 뛰어서 통과하는 슬라브(워브), 테이블 종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려견과 사람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원들은 방과 후 수업 등 학교 일과가 모두 끝난 뒤 훈련을 함께한다. 훈련을 바탕으로 애견훈련 경기대회, 어질리티 대회, 프리스비 대회, 전국 핸들링 콘테스트, 관세청 탐지견 훈련 대회 등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22개 대회에 참가해 금상만 18개를 받았다.

박만철 교사는 “대회에 참가하려면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며 “고등부 참가자가 없어서 대학생부나 일반부와 경쟁하는데도 주눅 들지 않고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대견하다.”라고 밝혔다.

동아리 부원들은 한목소리로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성승민(3학년) 학생은 “선생님들께서 대회 때마다 먼 길을 같이 가주시고, 주말에도 훈련을 도와주셔서 부원들 모두 감사한 마음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사는 앞으로도 부원들이

- 1 보더콜리 종인 차차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성승민 학생
- 2 어질리티 등 다양한 도그스포츠 훈련을 할 수 있는 야외 훈련장에 함께 모인 플라잉독 부원들과 파트너 훈련견들

건강하게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며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플라잉독 부원들은 봉화 지역주민 반려견 무료 행동 교정 활동, 지역의 유기견 보호소 청소와 유기견 관리 등 지역 봉사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 전국 유일 반려동물 전문 특성화고

경북인터넷고등학교가 전신인 한국펫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반려동물매니지먼트과, 반려동물뷰티케어과를 운영하며 반려동물 전문 특성화고등학교로 자리매김 중이다. 학교는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였다. 김동상 교장은 “인근 주민들을 배려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훈련장과 산책로, 기숙사를 조성했다.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 지역 교사를 봉화로 모셔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한국펫고등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약 3:1에 달한다. 현재 1학년 45명, 2학년 43명, 3학년 44명이 재학 중인데 111명이 제주도, 서울, 경기 및 전남 등 타 시도에서 왔다. 전국에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전교생에게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다. 장소은(3학년) 학생에 따르면 재학생은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다녀올 수 있지만, 담당 실습견이 눈에 아른거려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이곳 학생들은 훈련, 사육, 미용, 행동 교정, 펫 푸드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실전 수업을 듣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또 훈련소, 강아지 유치원, 미용 관련 산업체 현장 실무 교육을 받고 펫 쇼, 박람회 등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는다. 졸업생의 65%는 반려견 훈련사, 조련사, 애완동물 돌보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이고 그 외 35%는 대학에 진학해 전공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교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비전을 갖고 꿈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㉔



3



4



5

- 3 골든리트리버 라온이와 함께 장애물 넘기 훈련 중인 배수민 학생
- 4 푸들 마요와 함께 A형으로 생긴 장애물을 올라가서 넘어야 하는 A-프레임 훈련 중인 이진주 학생
- 5 부원들은 각자의 파트너견을 전담해서 돌본다. 교내에 조성된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교감하는 플라잉독 부원들

### Mini Interview



#### 성승민(3학년) 학생

훈련견 차차와 어질리티 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 되었다. 행복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반려견 훈련사라는 꿈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느낌이다. 요즘은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졸업 후에 반려견 유치원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고 싶어서다. 우리나라와 다른 반려견 문화를 경험하고 훈련방식도 공부하고 싶다. 반려견 훈련사나 미용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우리학교에 와서 견학을 해보길 바란다.

#### 임승운(3학년) 학생

중학생 때 방송프로그램에서 천방지축이던 강아지가 훈련사로 인해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반려견 훈련사라는 꿈을 가지고 학교를 알아보았다. 우리 학교의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때문에 집에서 멀었지만, 입학을 선택했다. 동아리 규칙을 정하기 위해 동아리가 끝난 이후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플라잉디스크 훈련을 열심히 해서 세계 디스크 독 대회에 나가고 싶은 바람도 있지만, 현재는 훈련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



#### 이진주(3학년) 학생

일반고와 한국펫고등학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꿈을 위한 선택지는 하나였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응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학교생활이 정말 행복했다. 함께 어질리티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조언해 주면서 성장했다. 대회 날 한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앞으로 1, 2학년 후배들에게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나중에 더 큰 훈련사가 되어 동문 후배들을 가르치러 오고 싶다.

#### 장소은(3학년) 학생

어릴 때 키우던 반려견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 겨울방학 때 훈련소 소장님이 동아리로 오셔서 어질리티와 복종훈련을 알려주셨는데 부원 한 명 한 명에게 문제점과 개선점을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이 배웠다. 올해 대회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펫 푸드를 비롯해 이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호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훈련사가 되고 싶다.



#### 전우진(3학년) 학생

어느 날 교실 게시판에서 학교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씬머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고 진학을 결정했다. 중학생 시절 꿈은 새끼동물 사육사인 포육사였는데 요즘은 훈련에 더 매력을 느낀다. 동아리에서 어질리티 대회에 참가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부원들의 실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또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훈련견인 나라와 올해 대회 준비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싶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

## 초등교사 출신 첫 수장... '7대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제38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교원들의 '7대 교육 현안'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이다. 초등교사 출신 수장으로 그 누구보다 학교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를 만나 교육 현안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제38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묵혀온 교육 현안의 해결을 가장 먼저 약속했다.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7대 교육 현안'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바로 그 첫 번째 현안 해결의 열쇠인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신설이었다.

정성국 회장은 교총 76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로서 수장에 올랐다. 취임 이전인 2005년부터 이미 교육부-교총 교섭협의위원 초등대표, 제28회 ACT(아세안 교원협의회) 총회 한국 대표, 교총 전문위원 등 교총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온 바 있다. 특히 2007년, 초·중등 교사의 역사적 고양을 위해 교총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함께 추진한 독도 탐방 프로그램으로 '독도의 날'이 제정되는 등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당시 바다 위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교실 수업에서 적용할 때마다 교사의 현장 경험이 수업의 질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직접 깨닫게 되었다."라며 웃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첫 성과

"취임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까지도 저는 학교 현장에 있었어요. 전국의 선생님들이 저를 교총의 대표로서 선택한 이유는 곧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온갖 유형의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무기력한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교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권침해 사례의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가장 되고 싶은 스승상에 대한 문항에  
늘 1위를 차지하는 답변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에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원 생활지도권의 법제화가 완성되면,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선생님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을 꾸짖거나 수업 시간에 잡자는 아이를 깨우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교총은 최근 카카오톡 교권온(ON) 채널을 개설하는 등 상시 교권 상담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교총은 인신공격성 평가나 교사에 대한 존중이 배제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의 폐지, 혹은 제도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기를...”**

교총은 올해를 ‘비본질적 행정업무 제로화 원년’ 실현의 해로 정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교사들에게는 그동안 수업 연구나 학생 상담보다 공문 회신, 행정 잡무 등 비본질적 업무가 가중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교사가 행정업무에 쫓기다 보면, 아이들과의

상담이나 교감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의 하루, 물리적 시간은 제한적이니까요. 일례로 저학년 학생들의 일기장에 선생님의 정성이 담긴 댓글의 길이가 짧아지면, 아이들은 금세 서운해합니다. 교총에서 이러한 업무경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교총에서 미래교육 및 학생들의 개별적 맞춤 교육을 위해 줄곧 주장해온 또 다른 교육 현안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과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르자는 것. 정 회장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준별로 학생들을 한 번 더 살피고,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과소학급 문제와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원수급 정책 마련에도 걸림돌이 되었고요. 이처럼 ‘평균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함이 바로 교총에서 제안하는 학급 수 기준 교원 산정입니다.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소인수 학급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설정하자는 안이지요.”

최근 교육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 늘봄학교, 유보통합’이다. 교총에서도 이 이슈들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견해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과 관련, 교총은 학교 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 회장은 “챗GPT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이들

수업이 무선망 구축, 기기 보급만으로 충분한 게 아닌 만큼 줄속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차근차근 세세한 검토를 거쳐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라는 주문이다.

**“스승으로서 존중받는 문화 만들어 가야지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만큼 안전한 곳은 없어요.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충,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학교에 떠넘겨진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돌봄, 방과후 인력 채용과 관리로 온갖 업무와 책임, 민원에 대응해야 하고요. 늘봄학교의 운영을 교원의 분장 업무로 관리하게 하는 건 정규교육도, 늘봄도 발전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육이자 방과 후 사교육인 늘봄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 안내 등 지원 역할을 하고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총은 유아교육법상 이미 학교로 명시되어 있는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를 10년째 고수해 오고 있다. 정 회장은 “교총은 유치원 교사의 신분, 자격, 처우, 근무 여건을 저하시키는,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유보통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곧 교총의 제안은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만 0~5세를 관장하되 0~2세에는 양질의 돌봄 체계를, 3~5세는 유아학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5월, 스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교총에서는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교원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요. ‘가장 되고 싶은 스승상’에 대한 문항에 늘 1위를 차지하는 답변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이에요. 저의 학창시절에도 저를 언



제나 믿어주고, 이끌어주셨던 은사님이 계십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이홍렬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류영호 선생님이 그런 은사님이었어요. 지난해 6월, 저의 취임식장에 특별히 은사님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날은 제 교직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정 회장은 “대한민국의 힘은 교육 강국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신바람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스승으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교육 회복이고,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정 회장은 “유·초·중등학교 현장을 대표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위원 및 특별위원들과 함께 현재 대한민국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



인공지능 수업 시리즈

- ① 초등 교실에서 시작하는 인공지능 수업
- ② 우리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그렸어요!
- ③ 생성형 인공지능(챗GPT) 수업 사례
- ④ 인공지능 수업과 윤리

1997년 한 인공지능이 최고의 체스 기사 중 한 명을 이겼다. 그러나 사람들은 컴퓨터가 체스를 이해하고 둔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체스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임이니 그 많은 수를 다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2015년 한 인공지능이 최고의 바둑기사 중 한 명을 이겼다. 바둑은 체스보다 복잡한 게임이었다. 사람들은 그동안 인간에게는 신선놀음에 비유하며 신비롭다고도 생각하던 바둑을 계산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보다 계산은 항상 빠르니 바둑도 더 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문제를 같이 떠올렸다. 주인을 구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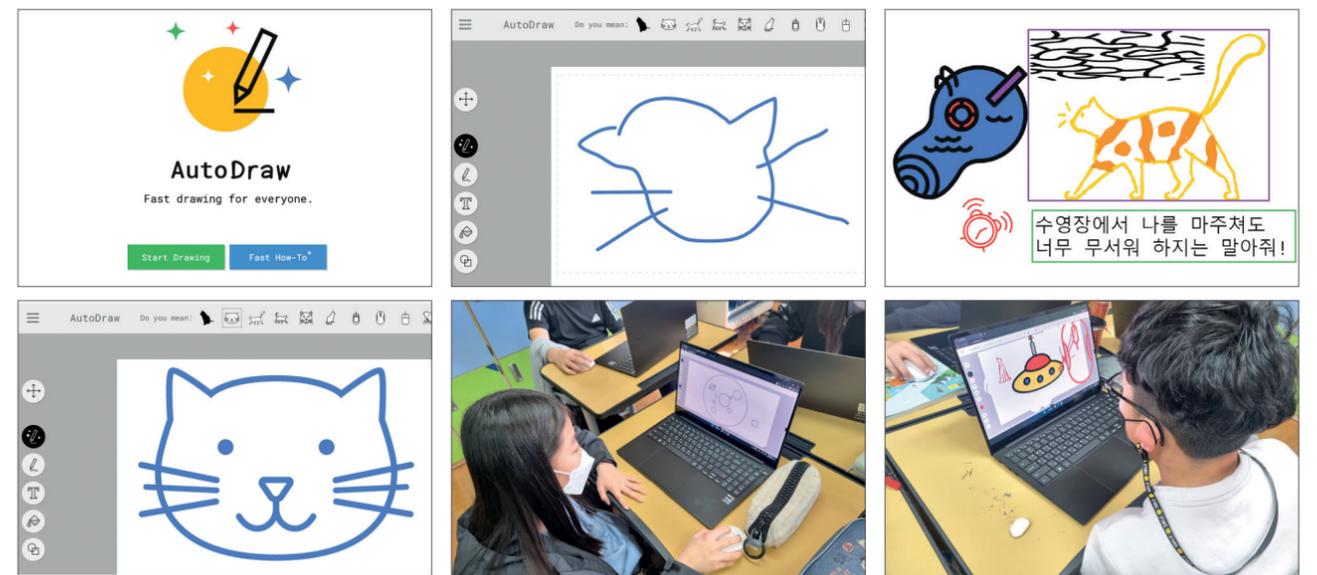
서 문을 열어주거나 개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등 목적이 분명한 일만이 인공지능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말을 알아듣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일 같은 것 말이다.

디지털 그림 도구로 수업을 더 알차게!

1 아이들도 쉽게 만드는 '오토드로우(www.autodra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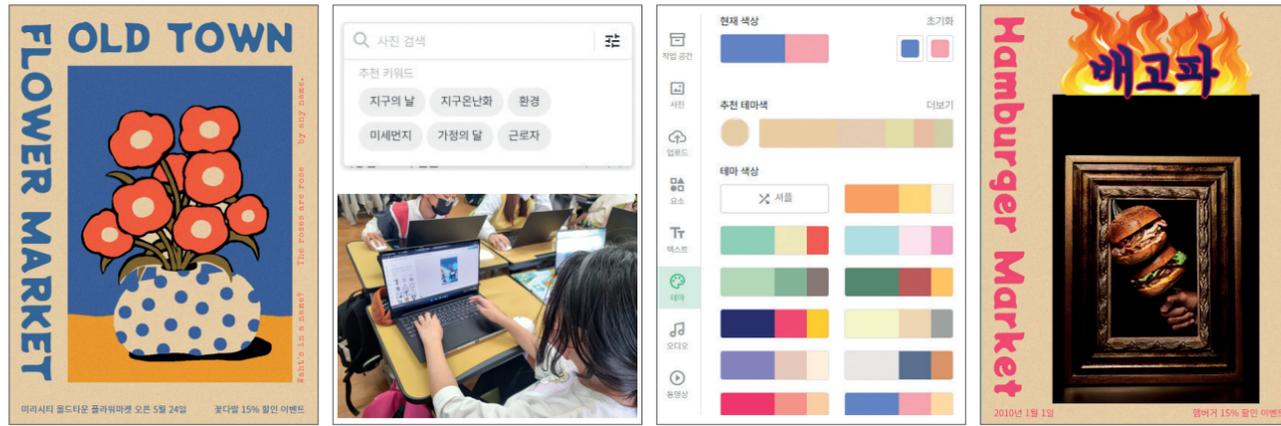
오토드로우는 구글에서 공개한 디지털 그림 도구로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반짝이는 마술 브러시를 눌러 적당히 형태를 갖추면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가장 유사한 그림을 추천해준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그리고 싶지만 형태를 잘 완성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양이를 자동으로 그려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어떤 아동들은 미술에 흥미를 잃는다고 한다.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의 발달에 비해 그림을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지 배우는 것이 목표인 수업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그림을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는 수업에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가령, 사회 교과에서 약자를 위한 포스터 만들기, 과학 교과에서 미래 우주선 설계하기와 같은 수업에서 말이다.



## 2 나도 디자이너처럼! '미리캔버스(www.miricanv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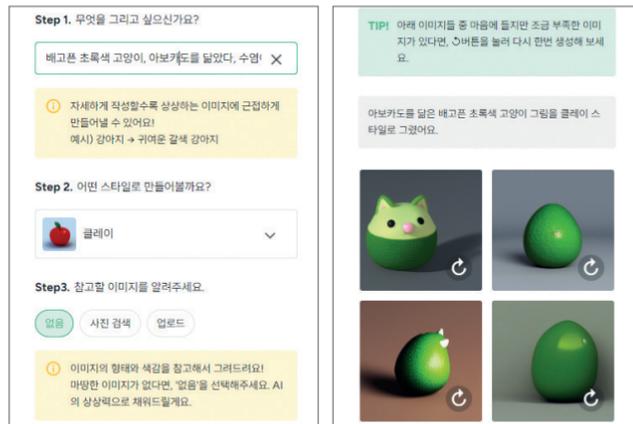
더 전문적인 그림을 도전할 때는 미리캔버스를 추천한다.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도 전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엄청난 양의 추천 콘텐츠이다. 학생들이 만들려는 주제에 맞게 여러 요소를 추천해 손쉽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텍스트, 오디오, 배경,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보면 누구나 쉽게 그럴듯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 감각이라고 표현되었던 디자이너들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초등학교생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색 조합이 어렵다면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테마 기능을 이용하면 추천 색상에 따라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고 선택하면 된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키워드를 입력해보자. 그럼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적절하게 생성해준다. 한 번에 만족스러운 이미지가 나오는 법은 없지만, 새로고침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럭저럭 쓸만한 보물을 건지기도 한다. 다행히도 학생들에게 아직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인간이 그린 그림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제대로 그리도록 도와주겠다며 열심히 키워드를 바꾸거나 새로고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공지능 교육에 임하는 교사로서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된다.

## 3 인공지능 이미지를 만드는 '미드저니(Midjourney)'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드저니는 2022년 미국에서 개최된 파인 아트 콘테스트의 디지털 이미지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 이 그림은 온라인 게임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달은 어린 학생도 놀라운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찾아왔다.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제이슨 앨런이 입력한 키워드로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이 인공지능으로 작품을 완성한 것을 솔직하게 말했고, 심사위원들 역시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창작성과 예술성을 높게 평가하여 앨런, 즉 출품자에게 상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그 주장은 유효하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달은 어린 학생도 놀라운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찾아왔다.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제한적<sup>1</sup>이고, 그마저도 사람의 마음에 속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수의 컴퓨터과학자는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축음기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의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퇴화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일부 사람의 우려와 다르게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음악을 듣고 즐기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떨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믿는다. <sup>1</sup>



제이슨 앨런의 AI 생성 작품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 콜로라도 주 박람회 디지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제이슨 앨런 제공)

<sup>1</sup> COPPA는 어린이(13세 미만)를 보호하는 미국의 약관으로써, 어린이들의 정보와 사용 기록 등을 서버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모델은 이러한 약관과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 디지털 기반의 '맞춤 교육' 시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분야도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을 통해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학습 분석을 통한 맞춤 교육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 시대를 위한 과제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등 교육 현장,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학교, 세계 에듀테크 박람회 현장을 소개한다.

## Special Theme

- 16 한 명 한 명의 학생에 초점을 둔 '맞춤 교육'을 희망하며
- 20 부산교대부설초 시공간을 허무는 창의력 '듬뿍' 맞춤 수업
- 24 서울 동양고등학교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 27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학교'에서 원하는 수업 듣는다
- 3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구현
- 34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Bett 2023'을 가다



# 한 명 한 명의 학생에 초점을 둔 '맞춤 교육'을 희망하며

지난 2월 23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은 공교육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접근했던 인식, 제도, 전략을 전향적으로 바꾼 정책으로 충분히 의미를 지닌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파괴적 혁신과 이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 최종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이 시대의 대응 방향과도 일치한다. 추진 계획의 최종적인 교육 혁신 모습과 전략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그만큼 정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완벽한 교육정책과 과제 제시를 기대하고,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 역시 구시대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최근의 교육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의 큰 방향에서 현황 파악과 수요 분석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을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교육 정책인가에 '모두를 위한, 한 명 한 명'을 언급한 비전에 공감하면서 정책 실천력을 확보하고, 교육 주체들이 공감해야 할 문제와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 기반의 맞춤 교육, '무엇을' 위한 맞춤 교육인가?

디지털 기반의 맞춤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수록 무엇을 위한 맞춤 교육인가에 대한 목표를 상기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춤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아닌 방법과 전략 중의 하나이다. 맞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교육 내용, 방법, 속도 등을 조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특성과 능력이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맞춤 교육인가에 대해 교육부 정책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언급하고 있다. 자기주도성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지만,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한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과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상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상정하고 있다. 결국, 맞춤 교육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학습과 삶을 이끌고, 사회공동체 일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 디지털 기반은 맞춤 교육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가?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데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필요조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한 시도는 그동안도 이루어져 왔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공

과 그룹별, 교실별 수업 실시 등의 시도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의 능동적 문제해결 중요성을 주장한 브루너의 완전학습 이론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상황은 1:1 수업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 1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완전학습 이론 적용이나 수준별 수업이 가져온 또 다른 교육적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의 맞춤 교육은 해당 학년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와 교사의 관찰과 경험에 의한 기록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한 시계열적인 학습 활동의 추적과 다양한 상황 제공에 의한 반응 등을 분석한 객관적인 데이터의 활용이 없는 맞춤 교육이 간헐적으로 시도될 수밖에 없던 이유이다. 맞춤 교육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다면, 학습 활동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예측과 처방에 가장 큰 기술적 장점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맞춤 교육의 필요조건이 된다.

디지털 기반이 충분조건까지 될 수 없는 이유는 데이터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 상황에 맞는 고려와 상호작용이 전제될 때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면서도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는 상황은 데이터로 분석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학생의 학습 행태를 관찰하고 상담을 통해 학습 습관을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조언하는 역할은 인간과의 교감을 전제로 한 또 다른 충족조건이다. 또한, 자기주도성은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현될 때 역량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볼 때, 학교 교육, 특히 교원의 사회·정서적 지원 역할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정책의 중점 방향을 교원의 역할 전환에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혁신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고려한다면, 결국 교사가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에 대한 효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다. 적어도 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맞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디지털 기술 융합과 개개인의 학습 상황에 맞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이끄는 교사의 역할이라는 충분조건이 함께 가야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맞춤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융합의 필요조건과 교사의 역할 전환이라는 충분조건 역시 난제이지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민간과 공공, 학교가 협력해야 풀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의 전제

디지털 기반의 맞춤 교육 실현은 현재로서는 기본 좋은, 되었으면 참 좋은 상상에 가깝다.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은 크게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는 교재로서의 교과서 혁신,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 방식의 혁신, 이를 둘러싼 학습 환경의 혁신 등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생태계의 전면적 혁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교과서, 교사의 역량, 학습 환경 등의 전환을 이끄는 기본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

가 따른다. 전제를 다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과 협의와 합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의 전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 통합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추진 주체 역시 협력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개개인 학생의 학습 수준과 성향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보, 이를 연계하는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에 담기는 디지털 콘텐츠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성향을 고려하여 시각, 청각, 조작 등의 형식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습 활동 분석에 의한 수준별 처치와 보정을 위해서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요소에 맞는 작은 수준의 자료가 필요하다. 하나의 기관이나 발행사가 감당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 수준에서 교육과정 연계 표준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구매, 연계, 공동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제 측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빙 구축으로 명명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에듀테크 도구의 다양성 확보:** 학생의 학습 성향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은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자극할 수 있지만, 수업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의 협력 학습 등을 촉진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성향 파악을 통한 교사의 수업 방식 전환을 지원함은 물론 학생의 학습 활동 참여가 또 하나의 맞춤 교육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가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는 통합 인증은 접근성의 기술적 문제이며, 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기반은 표



준 연구와 개발에 집중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개별적 학습 목표와 평가 설정, 지도 및 멘토링을 위한 학습 관리와 코칭 시스템:** 교사의 수업 설계가 학생 맞춤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학생의 개별적 학습 목표와 학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별, 그룹별 학생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질문이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지도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코칭의 역할까지 포함한다. 기술의 도움을 받는 코칭, 교사의 코칭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한 학생을 위한 지원에 기술과 인간은 협력 관계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기술만이 아닌 사람과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학습 분석과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 맞춤 교육을 위한 전제로써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이 학생의 학습 성향에 맞는 콘텐츠의 확보, 다양한 학생 중심 참여 활동 지원, 교사의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코칭을 지원하게 되면, 학습 분석과 예측은 더욱 풍부해지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시각화될 것이다. 종합적인 디지털 기반 학습 상황에서 확보될 수 있는 데이터가 학생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감성적 맞춤 교육에 활용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교육 혁신의 주체는 교사와 학교, 교사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 방향이나 과제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주체는 교사와 학교이다. 혁신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고려한다면, 결국 교사가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에 대한 효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용은 어떤 대상이나 행동이 가지는 유용성과 실용성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한 공감을 넘어 개개인의 교사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교육의 가치를 교사에게도 도입해 보자.

교사의 수업 스타일과 수준에 따라 적합한 교육 훈련 방식을 도입하고, 교사의 참여 활동에 대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나아가 학생의 학습 성장을 예측해 보고 선제 대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원 연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생의 역량은 교사의 역량과 동일해야 하며, 학생의 맞춤 교육 효용은 교사에게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 인식이 실천으로, 실천이 일상화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㉞

교실 속으로 들어온 에듀테크 ①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시공간을 허무는 창의력 '듬뿍' 맞춤 수업



1 어학실에서 에듀테크 영어 수업을 듣는 5학년 4반 학생들. 학생들은 크롬북으로 전자칠판과 화면을 공유하며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터치'한다.  
2 수학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중인 4학년 1반 장운선 교사  
3 태블릿에서 각도기를 터치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을 구하는 학생  
4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을 태블릿을 보며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학생  
5 짝공과 전자칠판과 연동된 화면으로 직접 영어 문장을 만들어보는 5학년 학생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하는 시범학교로 온라인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일찌감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참관수업을 통해 꾸준히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조현아 교사의 영어 수업(5학년 4반)과 장운선 교사의 수학 수업(4반 1반)을 다녀왔다.

다. 조 교사가 학생들의 답에 따라 단어와 이미지를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옮긴다. 이번에는 짝공과 크롬북을 가지고 조 교사가 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선글라스, 모자, 물병, 신발, 핸드폰 등을 이리저리 붙이면서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 영단어카드를 문장 빈 곳에 붙이기도 한다. 조 교사와 원어민 교사는 학생들을 돕는다.

짝공과 활동이 끝나면 발표가 이어진다. 조 교사가 화면에서 학생들 이름을 터치하자 학생들이 활동하던 화면이 전자칠판에 뜬다. 단어 배열이 틀린 학생, 미처 끝내지 못한 학생의 화면도 그대로 뜬다. 끝내지 못했어도 발표로 완성한다. 덕분에 웃음이 넘친다.

이번엔 '젠프(ZEP)'을 이용한 메타버스로 문제 풀이를 시작한다. 학생들의 아바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숨겨진 퀴즈를 푼다. 문제를 풀어야만 방을 나갈 수 있다. '방 탈출 게임'이다. 오늘 5학년 4반의 수업 단원은 "Whose Shoes Are These?"였다. 물건의 주인을 찾으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의 단수와 복수를 익힌다.

오전 11시 40분. 4학년 1반 학생들의 수학 시간.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 알아보기'가 수업 주제다. 장운선 교사가 전자칠판을 통해 각도기 사용하는 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생들도 태블릿PC로 각도기를 이용해 세 각의 합을 구해본다.

이번엔 알록달록한 다양한 삼각형이 전자칠판에 뜬다. 그런데 조 교사가 터치하니 삼각형이 3조각으로 찢어진다. 찢어진 세 조각을 이리저리 움직여 다시 붙이기도 하고 모양도 만든다.

학생들도 태블릿PC로 조 교사가 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조각들로 모양을 맞춰보고, 친구들의 활동을 전자칠판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고 발표도 한다.

"I'm gonna give you my heart~"

오전 10시 50분 어학실. 영어 수업이 시작되자 5학년 4반 24명이 영상을 보며 큰 소리로 팝송을 부른다. 큰 화면의 생생함과 음향의 웅장함이 마치 영화관에 온 것 같다. 수업 시작하지 불과 몇 초 만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영어'로 모인다.

"Whose sneakers are these?" 조현아 교사가 운동화를 들어 보이며 학생들에게 묻는다. 조 교사의 손에 들려있던 힌트가 적힌 메모지가 화면으로 쏙~. 학생들은 보우든 원어민 교사(Ms. Bowden)와 함께 영어로 운동화 주인 찾기에 나선다.

### 크롬북 활용해 물건의 주인을 찾아라 과제 수행하며 영어 단수·복수 배운다

전자칠판에 낯익은 얼굴과 물건들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운동화, 핸드폰, 물병 등이 누구 것인지 영어로 알아맞힌다. 모두 5학년 4반 친구들의 물건이



6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집중력이다. 조현아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질문하면 전자칠판의 상황을 영어로 발표하는 학생들

수업이 끝날 무렵,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한다.

“오늘 수업을 통해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궁무진 학습자료 & 빅데이터로 맞춤 학습**

이 학교의 영어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는 구글 사이트, 잼 보드, 잼, 워드월, 클래스카드다. 수학 수업에서는 북크리에이터, 온라인 수학교구(메스러닝센터), 디지털교과서, 구글 사이트, 구글 클래스룸, 잼, 티처메이드, 워드월, 티셀과 수학게임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에듀테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5학년 4반 이다인 학생은 “크롬북이랑 다양한 에듀

테크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 자율적이고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어 수업이 더 흥미롭고 재밌다.”라고 말했다. 서우석 학생도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도 바로 복습할 수 있어 좋다.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대답했다.

4학년 1반 김민기 학생은 “수학의 창의성이 길러지는 것 같다.”라고 했으며, 변성운 학생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하는 활동이 흥미롭다.”라고 답했다. 차예준 학생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수학에 관심이 많아졌고, 수업이 즐겁다.”라고 했으며, 정서현 학생은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학습을 할 수 있고, 문제 풀이를 통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에듀테크 자격증 소지자인 조 교사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은 클라우드 기반이라 학교나 가정에서 연계하여 학습을 지속할 수 있어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맞춤 수업도 가능합니다. 또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있어서 교사나 동료 학생들의 실시간 피드백과 평가도 이뤄져요.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끝으로,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목표'**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하는 시범학교로 온라인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일찌감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참관수업을 통해 결과들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업 목표를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에듀테크 도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 도달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조 교사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 목표 도달 측면에서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교육 과정, 성취기준, 평가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만을 생각해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수업에서 너무 많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만큼, 온-오프라인 수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장 교사는 “아이들이 단순하게 활동을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체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라며 “학습자 맞춤 수업 및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

생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누적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장 교사는 “아이들의 배움과 탐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목표에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새로운 것을 과감히 적용하며,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용한다면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사는 변화에 맞춰 선생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에듀테크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 선생님들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온라인 학습 도구도 많이 알려졌고, 선생님들의 연구물도 많아요. 우수한 콘텐츠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고요. 수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아이들은 크롬북으로 친구들의 물건을 옮기면서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  
8 자신이 크롬북으로 완성한 영어 문장을 전자칠판에서 수정하는 학생



교실 속으로 들어온 에듀테크 ②  
서울 동양고등학교

##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학** 생들이 다양한 영문명과 숫자로 뒤범벅된 코드를 컴퓨터 까만 화면에 적어놓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마치 대학교 컴퓨터 공학 수업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 속의 교실에서는 서울 동양고(교장 김승룡) 1, 2학년으로 구성된 AI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5명씩 모둠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학생들은 능숙하게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코드로 화면을 채운다.

###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저희 모둠은 챗GPT로 날씨를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API를 받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사이트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에 있는 API를 따서 코드를 완성했어요. 간결하게 코드를 짜서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3주가 됐는데, 챗GPT랑 API가 각각 완성되면 프로그램을 결합할 예정입니다. 챗GPT는 원하는 인풋을 넣으면 말해주는 정도까지 만들었어요.”(2학년 민준기 학생)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란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하며, 챗GPT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우리 모둠은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안 관련 암호화키를 구상 중입니다. 몇 년 전 워너크라이(WannaCry)라는 랜섬웨어가 유행해 문제가 됐었어요.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이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AES라고 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는데 텍스트를 암호화해보고 복구하는 것을 해봤어요.”(1학년 오태호 학생)

워너크라이는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으로, 2017년 순식간에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확산했던 최악의 해킹으로 기록된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들이 불을 깜빡이며 책상과 의자 사이를 오간다. 그 옆 교실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공학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가상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 ‘적극적 지원’은 ‘학생들의 성취감’으로

서울 동양고는 2020년 교육부가 지정한 ‘인공지능(AI) 융합 교육과정 중심고’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고 교육과정을 따라가지만 3년간 AI 융합교과를 학생들이 26단위 이상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해야 하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듣는 공동교육과정을 연간 4단위 이상 개설해야 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일반적인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생활교양)과 AI 관련 교과목을 두루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AI 관련 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현재 동양고에서 개설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은 1학년 필수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2학년 선택과목으로 ‘프로그래밍(파이썬)’,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3학년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과 퍼지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공동과목으로 ‘인공지능과 미



1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 수업과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동양고등학교 학생들. 왼쪽부터 아래 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성빈(3학년), 지관우(3학년), 임유한(2학년), 민준기(2학년), 유현준(3학년) 학생  
2 ‘자율주행자동차’ 동아리에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가 장착된 자율주행 로봇 알티노를 살펴보고 있다.

래사회’, ‘사물인터넷’이 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 1, 2학년에 ‘AI프로그래밍’, ‘자율주행자동차’가 있으며 3학년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컴퓨터’가 있다. 각 동아리당 정원이 20명인데 경쟁률이 2:1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AI 융합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온 김진혁 교사는 운영 노하우로 ‘선생님들의 관심,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학교 홍보’라고 설명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기회가 많아져 다양한 아이디어로 산출물을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3D프린터와 아두이노를 활용한 공기청정기 제작,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 아두이노를 활용한 의수 제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3 동양고에서 AI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김진혁 교사와 학생들

연였습니다. 또 수학, 과학에 관심이 없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이 AI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들으며 코딩에 관심을 두게 되어 진로를 결정한 학생도 있습니다.”

최근 3학년 이지원, 허성빈 학생이 만든 ‘스마트미러’를 실제로 교실에 설치하기도 했다.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해 만든 스마트미러는 API방식으로 정보들을 불러오고 답임 교사의 전달 사항을 교무실에서 입력하면 전체 학급에 전달된다.

AI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규 수업과 동아리 활동까지, 최상의 조건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임유한(2학년) 학생은 “뉴스에서만 보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지식이 아닌 원리를 파악하고 직접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개발자를 꿈꾸는 이도혁(2학년) 학생도 “동아리 활동을 하며 협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습도 할 수 있어 좋다.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신기술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

3학년 허성빈 학생은 “컴퓨터 관련 학과를 희망하기 때문에 ‘전기·전자·컴퓨터’ 동아리 활동이 많이 도움이 된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조원들과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고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했으며, 유현준, 지관우 학생은 “AI 관련 기자재가 고액임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동아리 활동이 더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 선생님들의 현실적이고 방향성 있는 지도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갈 길이 먼**

**‘무한한 가능성의 인공지능 교육’**

김 교사는 “아이들의 AI 관련한 활동들이 생기부의 교과뿐 아니라 동아리, 진로, 자율 등 창의적 체험활동 각 분야에 기록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라며 “다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AI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없다.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사는 근래 AI 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개별 학교에서 정보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수준 높은 AI 교육을 위해 동양고에서는 정보교사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및 일부 인문계열 과목의 교사들도 AI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고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으며, 실제 학생 지도에 뛰어 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사는 안정적인 AI 교육을 위해서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닌 교육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학교’에서 원하는 수업 듣는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가 오는 9월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개개인의 맞춤 교육을 지향하는 온라인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산구 운남고등학교(교장 백종복)에 자리를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빛고을온학교’ 현장을 다녀왔다.

**“학교에 개설 안 된 과목을 빛고을온학교에서 배우요”**

“요즘 정말 즐겁게 수업하고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프랑수에 관심이 있었다는 박서빈(운남고 2학년) 학생은 두 눈을 반짝이며 힘주어 말했다. 박서빈 학생이 재학 중인 운남고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개설 중이다. 그럼 어디서 프랑수를 배우고 있을까?

박서빈 학생은 “빛고을온학교에서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 있다. 일주일에 세 번 5명이 함께 미디어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개인적으로 어학원에 다니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데 대학교수님께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어려운 발음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알려 주셔서 잘 배울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빛고을온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설립한 공립 온라인학교다. ‘온라인’과 ‘모든’을 의미하는 ‘온’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빛고을온학교는 옛 광주과학고 기숙사동을 재정비해 올해 9월 1일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는 서강고와 운남고에 마련된 온라인수업센터를 통해 온라인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왔다. 2019년부터 준비된 토대 위에서 온라인학교가 순항하고 있는 것.

빛고을온학교는 정규 교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등 전문 강사진을 통해 관광서비스, 간호의 기초,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생태와 환경,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정보과제 연구, 프랑스어, 스페인어, 미술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등 총 25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40여 명의 학생이 각자의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 중에 각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선택과목을 수강 중이다.



4월 13일, 8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경제 수학과 빅데이터 분석 수업이 온라인수업센터에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과 선생님은 모니터 화면 너머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수업 중이었다.

황용준(사회교과 담당) 교사는 “사회 교과 중에서도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학교의 경우 경제 과목 수강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학교를 통해 좋아하는 과목을 즐겁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기운(기술교과 담당) 교사는 “기술 교과는 소수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힘든 면이 있다.”라며 “고교 과정에서 지식재산일반, 공학일반 등의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온라인학교로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김유송 장학사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들으면서 각자의 전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꾸준하게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의 요청 사항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온라인학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속 학생 없는 신개념 온라인학교  
오는 9월 개교 앞두고 준비 한창**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운영되는 온라인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속 학교 환경에 의해 교육과정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학교는 광주, 대구, 인천, 경남 등 총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각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추진 현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김용말 장학사는 “대구에서는 현재 8명의 교사가 발령받은 상태이다. 1학기는 온라인공동캠퍼스를 운영 중이던 대구고등학교에서 15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중이며 9월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다.”라며 “매주 권역별 연수를 통해 온라인학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창원시 내서중학교 별관을 재건축해 온라인학교 교사(校舍)를 마련할 예정이다. 양재영 장학사에 따르면 현재는 경남교육정보원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1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110여 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학교는 현재 9명의 교사를 선발했으며, 부평구 갈산초등학교에 교사(校舍)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진 장학사는 “5월 중으로 학교별 수요 조사를 마치고 과목 개설을 협의한 후 온라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학교는 교장, 교감, 전임 교사 및 외부 강사 등 교원과 행정실 등을 갖추고 있지만, 학교에 소속된 학생은 없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각 시도별 유휴 시설을 활용해 학교 공간을 마련하고 원격교육 설비와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강의실을 구축해야 한다. 주로 신청 학생 수가 적거나 신산업 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비대면·대면 혼합 수업도 가능하다. 또 과목의 특성에 따라 가상공간 활용 수업, 플립 러닝,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학생은 최대 6단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새로운 길, 넘어야 할 과제 많아  
시스템 확충, 인적 지원 충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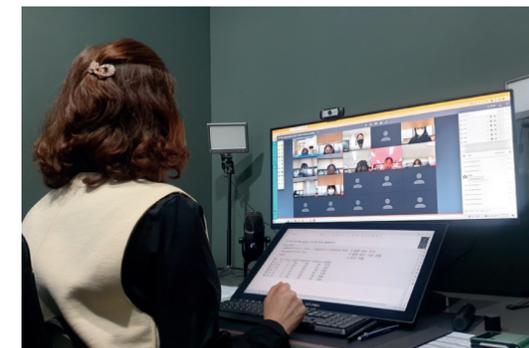
빛고을온학교 김병섭(국어교과 담당) 교사는 “온라인학교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사(校舍) 구축 등 시설 부분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기존 학교와 다른 온라인학교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 수요 조사를 통한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빛고을온학교를 방문한 날, 교무실에서는 온라인학교 개교 준비와 더불어 온라인 과목 개설을 위해 예정된 수요 조사 준비작업이 한창이었다. 김 교사는 “일선 학교와 온라인학교 사이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 이수진 장학사는 “온라인학교만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미래상을 세울 때 학교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설립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며 “온라인학교가 기존에 온라인 공동수업센터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남교육청 양재영 장학사는 “온라인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공동교육과정은 정규 시간 외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또한 학생들에게 부담이었다.”라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수강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온라인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교육과정 수립, 수업 평가, 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원 역량 함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온라인학교 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지원과 플랫폼 정비 및 인적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랐다.

대구시교육청 김용말 장학사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소규모 단위 학교가 늘어나게 되면 온라인학교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학사는 “사례가 없으니 초반에 시범 운영하게 된 4개 시도교육청이 많이 고생했다.”라며 “우리가 좌충우돌했던 과정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게 될 것 같다.”라고 기대했다. ㉔



빛고을온학교 빅데이터 분석 수업



빛고을온학교 수업이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 센터



교육부는 2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대한 비전과 핵심정책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구현

1990년 UN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다. 어떤 자질을 타고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떤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준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며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얼마 전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글로벌 에듀테크 박람회인 ‘BETT UK 2023’에서는 교사가 챗GPT를 활용해 수업자료와 퀴즈를 만들고(알레프에듀),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라이트스피드시스템)을

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의 교육 내용과 방식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어진 문제를 잘 풀고 답을 제시하는 것은 AI가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이므로 이제는 개념 중심의 지식에 더해 창의성과 인성, 융합역량, 비판적 사고, 컴퓨팅 사고 등 새로운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자신만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바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하이터치(High-Touch) 하이테크(High-Tech)’ 교육으로,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시대의 교육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써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2.23)하였으며, 교육개혁 3대 정책으로 디지털 교육혁신을 포함하는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 기술과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교과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교과서로, AI가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에게는 학습 수준을 사전에 진단해 그에 맞는 설명과 문항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실시간으로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며,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학습 코칭과 멘토링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할 계획으로, 수학의 경우 AI 튜터링 기술을 적용해 맞춤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어의 경우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듣기·말하기 역량을 강화하며, 정보는 교육과정 내에서 코딩 체험과 실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이 세 개 교과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교과들로, AI를 활용한 맞춤

교육부는 2023년을 디지털 교육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학습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초3·4, 중1, 고등학교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부터 시작하여 2026년 초5·6, 중2, 2027년 중3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가는 교원 양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 수업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잡자는 교실을 깨우는 것이 목표이므로 무엇보다도 교실을 이끌어가는 교원들의 변화 의지와 노력,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대전환과 학교 수업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에 대한 인간적 지도를 통해 수업을 혁신할 의지가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선도교사단(T.O.U.C.H 교사단)을 구성하고 민간과 연계한 집중 연수(부트캠프)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교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교과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학교의 문화를 형성하는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디지털 교육 전환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중요하므로 선도교사단의 동료연수, 민간 기업 연수과정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및 인프라 지원**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 방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디지털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학교급, 활용방식, 적용과정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현

장 적합도 높은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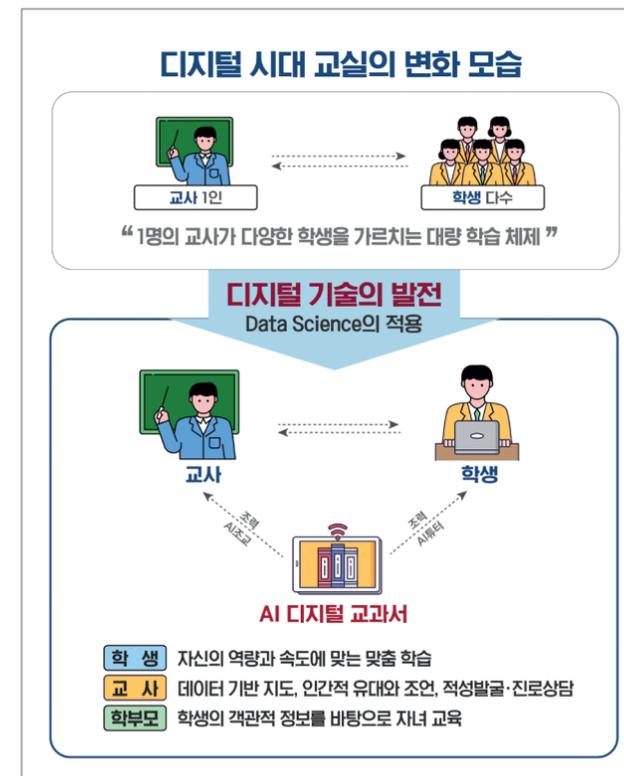
2025년 3월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기기를 지급하고 학교 무선망도 구축하고 있지만 보다 꼼꼼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기기 보급 현황을 조사하고 기 보급된 기기라도 기능 및 사양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한다. 무선망 또한 학습데이터 전송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과 함께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성공적 모델 창출·확산해 나간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이 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성공 경험과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 전환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디지털 교육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코스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미리 경험하는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도 지원해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진행된 시범교육청 공모 과정에 많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부는 2023년을 디지털 교육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현장과 학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Bett 2023'을 가다



1 커넥트@벳 15분 시간을 정해 놓고 학교 구매담당자와 에듀테크 기업이 스피드 미팅을 하고 있다. (출처 = Bett 2023 공식 홈페이지)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Bett 2023(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 2023)'이 영국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교육 현안을 기술로 풀어나가는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기자단도 설레었다. 전년보다 거대해진 콘퍼런스와 올해 새로 시작한 '커넥트@벳(Connect@Bett)'은 한국 교육계와 교육 분야 기자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다양한 에듀테크도 그렇지만 박람회 현장을 중흥무진하는 교사들의 활동도 관심을 끌었다.

## 학생 생활안전 위협 대응,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까지 무궁무진한 에듀테크

Bett 2023 주제는 '리커넥트(Re-connect), 리이미진(Re-imagine), 리뉴(Re-new)'다. 교육 생태계를 다시 연결하고(Re-connect), 교육에서 기술의 잠재력을 재구상하고(Re-imagine), 모두에게 공평한 학습을 다시 새롭게 약속하자(Re-new)는 것이 총괄 테마다. 총 3만 1,500㎡ 규모의 엑셀 전시장에서는 23개국, 600개 이상의 에듀테크 기업이 참가해 에듀테크 솔루션 전시와 함께 5,000개 이상의 콘퍼런스와 세미나, 강연 행사를 진행했다.

주요 참가기업의 사업 분야는 유아부터 초·중·고등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솔루션과 콘텐츠 전반을 망라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부터 피어슨과 같은 영국의 대표적 교육·출판 전문미디어 기업, 스마트 테크놀로지·프로메테안 등 전자출판, 온라인 교육 솔루션 기업 등이 참가했다.

MS는 MS365에듀케이션을 새로운 교수학습 도구인 '러닝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학습활동이 이뤄지는 동안 학습자에게 실시간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읽기·수리, 디지털 검색 역량, 발표 능력 강화와 함께 학생 감정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면, 교사는 이를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학생이 어느 정도 우울감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직접 녹음한 읽기 파일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읽기나 말하기 지원도 한다. 개별 학습자들의 읽기 데이터를 통해 각자 필요한 교재를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단어와 발음법 데이터도 제공한다.

아보(Arbor)는 학교 경영정보시스템(MIS) 전문기업으로, 이번 'Bett 2023'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심리 상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보였다. 학생들의 출석상태, 성취도 수준뿐만 아니라 행동항목 중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사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인터넷 유휴사이트 필터를 개발해 온 라이트스피드시스템은 위험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 주변인들에게 경고를 올려주는 솔루션 '라이트 스피트 알러트'를 소개했다. 학생이 자살이나 폭력과 같

은 단어를 검색하거나 학생이 마주하는 콘텐츠가 학생 정신 건강에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게 할 만큼 문제가 될 경우 관리자나 교사, 학부모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해 대응하도록 하고, 답이 없으면 솔루션에서 자동적으로 경찰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테크다.

챗GPT로 촉발된 AI의 활용도 역시 관심을 끌었다. UAE 에듀테크 기업인 알레프(Alef)는 AI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시연했다.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질문을 하면,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AI 플랫폼이 마치 학생과 아인슈타인이 대화를 하듯이 문답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 새로 시작한 이벤트 중 하나인 '커넥트@벳'은 우리나라와 다른 에듀테크 환경을 보여줬다. Bett 주최측은 교육기관 구매 담당 책임자 수천 명과 500개 이상 에듀테크 기업이 '스피드 데이팅'처럼 직접 만나도록 주선했다. 주최측에서 사전등록된 구매담당자와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적합한 방문자-기업을 맞춤형 매칭을 해준다. 한 번 만남의 시간은 15분. 학교·교육기관 등 구매담당자와 기업은 최대 15회 가량 만나볼 수 있다. 자리에 앉으면 초시계가 돌아간다. "우리 학교에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걸 구현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의 기술은 이런 것인데 학교에서 한 번 써보시면 어때요?"와 같은 대화가 이어진다. 초시계가 15분이 되었음을 알리면 다른 자리를 찾아 다른 모임을 갖는다. 서로 대화가 통했다면? 당연히 '애프터'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영국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더 나아가면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에듀테크 활발히 활용하는 영국 학교들 모든 교재·에듀테크 학교와 교사가 결정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46.8억 달러(약 6조 2,000억 원)로, 2026년까지 연평균 22%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에서도 두드러지게 에듀테크 기업들이 성장한 곳이 영국이다. 영국 디지털경제위원회는 2020년 8월 기준 영국 에듀테크 기업이 유럽 전체의 25%인 1,200여 개라고 집계했다. 에듀테크 기업의 숫자는 영국 디지털 기업의 4% 수준으로, 이는 핀테크 기업과도 비슷한 규모다. 영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적인 금융 강국으로, 런던은 세계 최고의 핀테크 허브 중 하나다. 그런 핀테크의 수준까지 에듀테크가

- 2 질리언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이 Bett 기조연설에서 향후 학교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밝히고 있다.
- 3 라이트스피드시스템 직원이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상태에 처한 학생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국 기자단에 설명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에듀테크 산업 성장은 영국이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정해주지 않는다. 국정, 검정, 인정으로 나누는 것도 없이 모든 교재는 학교와 교사가 결정한다. 에듀테크 역시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도입한 에듀테크는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지도나 학생 정보 관리에 활용된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배포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교사가 직접 선택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학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한다.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은 “수위가 가장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교문을 넘어 교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Bett에서 만난 영국 기업은 “교사들이 전시회에 참석해 에듀테크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기업들은 피드백을 받아 새롭게 개발하고 그다음 해에 또 같은 부스를 찾아 교사들이 업그레이드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전시회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과 학교의 다리 역할을 했다. 학교 교사가 수많은 에듀테크를 접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협회와 협력해 플랫폼 ‘렌드이디(LendEd)’를 만들기도 했다. 교사는 샘플을 받아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길 수 있으며, 그 후기는 또 다른 교사의 구매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캐롤린 라이트 영국 교육기자재협회(BESA) 사무총장은 렌드이디 플랫폼을 만든 배경에 대해 “영국에서도 정부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도 교사는 제품을 몰라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

라고 털어놨다. 부작용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고, 이제 자리가 잡혀 교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었다.

영국의 에듀테크 역사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인터넷이나 테크의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학교에 PC와 인터넷을 보급한 것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이후 방향성에서 크게 갈렸다. 2010년 데이티브 캐머런 정부는 자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카데미 학교 설립법을 2010년 제정하고 그해 말 교육정보화 전문국가기관(BECTA)을 폐지했다. 이 같은 자율 중심 정책은 학교 선택권을 강화했고 더불어 민간 시장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자율이 만능은 아니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학교 인프라는 노후화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학교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질리언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이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기가급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영, 에듀테크는 기술일 뿐, 어떤 에듀테크도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

정책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장궤도에 오른 영국 에듀테크 산업계가 가장 핵심에 두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Bett 현장에서 만난 구글·MS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이구동성으로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듀테크가 다른 분야의 기술과 다른 점은 ‘에듀테크’ 자체의 역할을 교사와 학생을 돕는 데 한정한다는 것이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어떤 기술도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먼



4 Bett 2023에서 에듀테크 기업 직원들과 교사들이 자유롭게 만나 토론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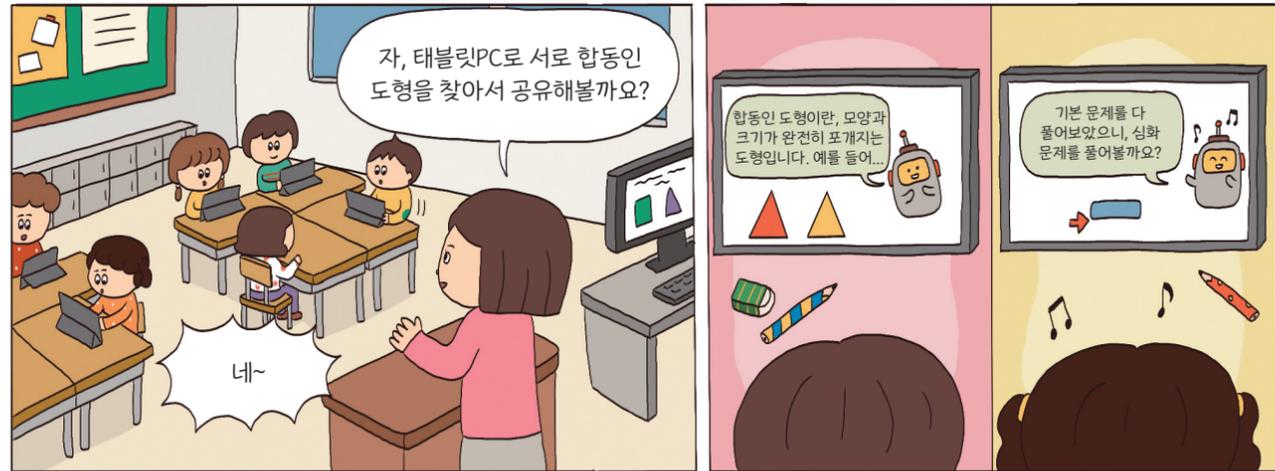
저 강조한다. 교사가 진정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이 학습을 보다 흥미롭게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와 같은 가전기기가 가족 구성원 누군가의 일은 줄여줬지만, 그 역할을 축소시킨 것은 전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은 자율성 기반의 학교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자율권을 부여했을 때 영국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교사들의 격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든 카드는 ‘연수’와 성공사례 공유다.

에듀테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할 방법을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에듀테크다.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내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로 분석해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한다. 학령인구 감소, 커지는 교육격차, AI로 인한 사회 변화 등 많은 난제와 현안이 교육 앞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사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에듀테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기 기대한다. ②



# AI 활용 디지털교육, 맞춤교육시대를 열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고, 교사들이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에 집중함으로써 인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융합역량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구축합니다.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AI를 활용하며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터치(T.O.U.C.H)교사단을 양성합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세계화 프로젝트 43년 전 그날을 기억해주세요!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올해 새롭게 위촉한 청소년홍보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를 추진,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필수운영비를 지급하여 학생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체험캠프, 오월강사단 파견, 교사 직무연수 등의 사업도 병행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인정도서를 발행하여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가 하면 해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관련 자료를 관내 학교 및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바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민주화운동 기념 교육주간을 설정하고 학생회가 주관하는 교내 기념식 행사 및 현수막 게시, 계기수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수업을 지원하는 오월강사단 운영, 전국의 학생들을 광주로 초청해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5·18캠프, 전국 교원 초청 직무연수 등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5·18은 27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주에서 계속되었고 그 숨 막히는 곳에서 광주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 역사와 사람, 진실과 교육 현장을 잇는 특별한 프로젝트

2022년 한 해 동안만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포함 320개교, 17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삼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고, 학교는 국어·사회·영어·창체 수업 시간에 작문, 토론, 영상 제작, 영어가사 해석 등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오월로 떠나는 청소년 인문학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5·18캠프의 경우 초창기부터 2017년까지는 매해 200명, 2018년부터는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해 매해 500명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캠프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탐방과 미션 수행, 5·18민주화운동 당시 청소년이었던 당사자에게서 듣는 이야기마당, 5·18민주화운동 퀴즈 골든벨 등 체험과 참여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5·18 당사자였던 해설자가 505보안대 옛터에서 고문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다.”, “5·18은 27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주에서 계속되었고 그 숨 막히는 곳에서 광주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5·18 기록관에선 40여 년 전의 총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잔인하고 참혹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역사 속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5·18민주화운동 바로 알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매년 전국에서 교사 500명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직무연수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전국 교사 직무연수는 5·18민주화운동 특강, 수업사례 공유, 옛 전남도청·5·18민주화운동기록관·전일빌딩245·국립5·18민주묘지 등의 사적지 탐방과 ‘오! 금남식당’ 연극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김용원 장학사는 “코로나19로 집합연수 추진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4인 1조의 5·18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참여교사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발적 참여 형태로 진행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면서 “기존의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팀을 이뤄 자율적으로 연수와 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았고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자율연수 방식으로 교사 직무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사 직무연수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시작한 '5·18청소년홍보단 푸른새' 활동도 주목해 볼 만하다. '푸른새'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3월 28일 81명의 청소년홍보단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홍보단은 올해 12월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캠페인·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5·18 가짜뉴스 및 역사왜곡 바로잡기 활동, 홍보행사 참여 등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강사와 민주화 운동가가 직접 찾아가는 오월강사단 파견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다. 세계민주시민교육과의 고인자 과장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해당 사업은 매년 200학급으로 한정해 수업을 진행해오다 강사진 충원과 강사 워크숍 등을 통해 프로그램 재구성이 이뤄진 2018년부터는 매년 500학급으로 확대해 진행해오고 있다.”라면서 오월강사단 사업이 전국의 관심을 받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5·18민주화운동 교육 세계화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국제교류 및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 학생독립운동, 3·15의거, 4·19혁명 등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한데 모은 '광주민주주의 역사누리터' 설립을 추진하여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주·인권·평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㉓



2 5·18민주화운동 리본달기 활동(광주효덕초등학교)



3 5·18민주화운동 계기교육(동운초등학교)

## 5·18민주화운동 교육은 민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

**Q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의미는?**  
 청소년들이 역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전문강사 또는 당시 민주화 운동가의 목소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것은 잊지 않는 경험일 것이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Q 올해 새롭게 계획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난해에 스웨덴과 공동 개최한 시민인권교육포럼을 확장하여 올해에는 '5·18민주화운동 교육 세계화 프로젝트'와 '5·18 청소년홍보단 푸른새'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타 시도교육청과 민주주의 역사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하는 활동 역시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다.

**Q 광주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설립과 추진 상황은?**  
 2월부터 역사누리터 기본계획안 수립을 시작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입찰, 보고회, 운영계획 수립, 심사, 예산, 설계와 공사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고 과정상 변동 사항도 생길 수 있지만 2025년 연말 정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Q 교육청에서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광주시교육청과 5·18기념재단이 2021년 2월에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인성교과서(고등학교)가 대표적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22개 주제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으로 풀어내고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 당시 증언, 풍부한 사진과 자료들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 인성교과서 표지

### 교사 및 학생 대상 주요 프로그램 신청 방법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 교사 직무연수(연극 관람)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한 뒤 신청을 받는데 4월에 5·18캠프, 5월에 전국 교사 직무연수, 6월에 오월강사단 신청이 진행된다. 5·18문화예술 공연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학교에 한해 진행된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창작탈극, 소리, 춤 등을 통해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와 1980년 오월 시민들이 나눠 먹었던 주먹밥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나눔의 의미를 표현한 연극 '오! 금남식당' 두 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다.

# 이달의 교육뉴스

vol.490 2023 MAY

## 01.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했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도 개선한다. 사안 발생 시에는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 02.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미래 교육 수요와 교원수급 연계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하여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 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 03. 1년 이내 집중교육으로 반도체기업 취업 길 열린다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올여름 계절학기부터 10개 대학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개설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는 그 수준에 따라 기업·대학 공동명의로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등을 받아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부경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 05. 단국대, 부경대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와 부경대학교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역량강화사업 등에 연계·활용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두 대학은 주변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양호하며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하고 창업기업 등 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단국대학교는 첨단 부품·소재, 생명건강관리(바이오헬스케어), 부경대학교는 지능형(스마트)해양수산, 파워반도체, 지능건강관리(스마트헬스) 등을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각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할 계획이다.

## 06.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과정 참여 보장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4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공립 기관 모델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먼저, 소규모 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고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9시에서 8시로 시범 조정하는 한편, 지역 연계·숲·생태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교육 여건도 조성해 나간다. ㉠



작업 공간 개인 정원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임 대표

정원 디자이너\_ ‘아이디얼 가든’ 임춘화 대표

## “아날로그 감성으로 오롯이 피워내는 행복이죠”

정원 디자이너는 건축가가 건축물을 짓듯이 정원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관리까지 총감독의 역할을 맡는다. 정원 디자이너가 되려면 가장 먼저 식물을 좋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식재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세대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해 오고 있는 ‘아이디얼 가든’ 임춘화 대표를 만나 정원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른 후반이 되어 떠난 유학길이었다. 귀국한 뒤 참여한 첫 정원 프로젝트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이후 대우·위례 푸르지오 아파트 작가정원, 순천만 정원박람회 SK정원, 경기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등 수많은 정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나** 무 계단으로 올라서자, 봄꽃이 가득한 화원이 펼쳐졌다. 튤립, 수선화, 비올라, 산매화, 영산홍, 매발톱꽃, 산앵두꽃, 철쭉... 정원 디자인회사 ‘아이디얼 가든’ 임춘화 대표가 정성 들여 가꾸는 개인 정원이다. 20여 년간 정원 디자이너로 살아온 임 대표가 2년 전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가꾸기 시작했다. 임 대표는 우리나라 정원 디자인의 첫 세대로 손꼽힌다. 훗날 정원 디자이너의 삶을 예견한 운명적인 작명이었을까? 산에서 약초 캐는 일로 다섯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켰다는 그녀의 부친은 딸의 이름을 ‘봄꽃’으로 지어주었다.

현재 정원 디자이너 교육과정인 ‘가든 디자인 스쿨’을 운영 중이며,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조경·생태복원 전공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정원 디자인의 교과서라 할 <행복한 놀이, 정원디자인>을 2010년 펴냈다. 또 우리 환경에 특화된 식재 디자인 실용서 <정원의 식재 디자인>도 새로 출간했다. 임 대표는 이 책을 통해 정원의 식재 디자인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준다. 다음은 임춘화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하나, 정원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임 대표는 영국 리즈메트로폴리탄 대학교와 영국 왕립원예협회 할로카(Harlow Carr) 가든이 개설한 정원 디자인 과정(2004년)을 이수했다. 서

건축물을 짓는 데는 건축가의 설계가 필요하다. 정원 디자이너도 그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정원을 구상한

# Garden Designer



정원 디자인에 가장 중요한 재료인 꽃을 다루어야 하므로 색채감각, 미술적인 감각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후 상세 설계도면을 그리고, 시공관리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간 및 식재 디자인을 한 후에는 그것과 잘 조화할 수 있는 산책로, 쉼터, 조형물 등을 배치한다. 정원 설계에서는 특히 식재 디자인이 중요하다. 식물의 생태, 환경, 형태, 질감,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그리고, 그에 따라 시공하게 된다. 지금 이곳 정원에도 현재는 봄꽃이 한창이지만, 계절마다 꽃피울 여러해살이 식물들이 땅속에서, 혹은 수풀 사이에서 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둘, 정원 디자이너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경북 예천의 산골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꽃과 식물을 좋아했다. 도

시로 나오면서 결혼한 후에도 마당 있는 집에 살았다. 이때도 정원 가꾸는 데에 관심은 많았지만, 환경적 여건으로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었다. 온 가족이 떠난 영국 유학 중 왕립원예협회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엘 갔었는데, 그곳 정원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영국 정원은 초화(草花)와 교목을 활용하여 마치 풍경화를 그리듯 디자인하는 게 특징이다. 유학 당시에는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그저 배워두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정원 디자인 전문가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실제로 정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가서 공부해 보니 영국 정원 디자인 교육과정은 그 긴 역사만큼이나 체계적이고, 커리큘럼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학 당시, 정원 디자인에 관

한 전문용어도 모르고, 도구도 충분하지 않으니 무척 힘들게 공부해야 했다. 매주 수행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즈음, 마침 국내에서도 타샤 튜더의 정원 가꾸는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영국 정원에 관한 관심이 한창 고조될 때였다. 영국 스타일로 정원에 꽃을 심고, 가꾸어줄 전문가를 찾는 곳이 부쩍 늘어나던 시기였다. 영국 정원에 대한 강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이때 ‘가든 디자인 스쿨’ 교육과정도 개설하게 되었다.

셋, ‘가든 디자인 스쿨’의 교육과정을 소개한다면?

첫째는 실내 정원 등 개인 정원을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한 과정이다. 두 번째는 정원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식재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1 아날로그 감성이 중요하다는 임 대표  
2 임 대표가 직접 꾸민 자택 정원



세 번째가 정원 디자인 전문가과정이다. 앞의 두 과정은 8~10주 코스로 운영되지만, 전문가과정은 교육 기간이 1년이다. 정원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설계, 만드는 과정 등 전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넷, 개인 정원 외에도 다양한 공공 정원 프로젝트에도 참가했는데...

공공정원 프로젝트에는 더 다양한 콘셉트와 그 가치를 담게 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여울공원 작가정원인 ‘느릿느릿 걷는 구부러진 길’이 설계자로서 아끼는 공공정원 작품 중 하나다.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를 떠올리며 설계한 정원이다. 도시에서 직진으로 내달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춤’과 ‘쉽’을 제공하자는 콘셉트로 구상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식재 디자인 또한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맞춰 균형을 잘 이루도록 설계하였다. 또 2021년에 진주 희망공원에서 ‘희망’을 주제로 한 작품, 위례 푸르지오 아파트의 ‘시간의 정원’ 설계에도 참여했는데, 두 공공정원 모두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인상적인 프로젝트였다.

다섯, 정원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매력은?

이 일을 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다. 다른 집의 정원을 만들 때도 우리 집 정

원을 가꾸는 마음인 양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곤 한다. 정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도 크며, 꽃으로 연출하는 결과물이 주는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정원을 바라보며 얻는 즐거움이 있다면, 정원을 직접 가꾸면서 얻는 즐거움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정원에서의 행복감을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주거환경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더 많은 사람이 정원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정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 이유다.

여섯, 정원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우선 식물을 좋아해야 한다. 식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정원을 설계할 때, 식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대개는 시설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정원 디자인에 가장 중요한 재료인 꽃을 다루어야 하므로 색채감각, 미술적인 감

각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정원 디자이너 하면 호미 들고 땅 파는 노동을 떠올리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정원의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총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곱, 직업의 전망, 그리고 지망할 학생들에게 조언을 들려준다면?

디지털로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아날로그 감성의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야외 정원이나 실내 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요가 더 늘었다.

이러한 아날로그 문화와 감성을 즐기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정원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전망이 좋아서 선택하는 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에 도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

**TIP BOX**

**정원 디자이너를 위한 진로 팁**

현재 활동하는 정원 디자이너 중에 조경학과와 원예학과 전공자들이 많다. 최근에는 새로운 직업에 재도전하려는 비전공자들의 진입도 늘어나고 있다. 정원 디자인 관련 교육은 ‘가든 디자인 스쿨’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최근에는 산림청에서 정원 가꾸기와 관련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또 각 시도 지자체에서도 ‘푸른 숲 아카데미’ 등처럼 정원 가꾸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활동에서 길을 찾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제는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뜬금없는 질문에 의아해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감소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말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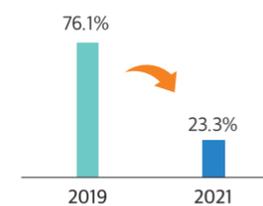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봉사(Service)와 학습(Learning)을 통합한 개념인 봉사학습은 학교에서 학습하게 되는 교과활동을 통해 학습과 더불어, 조직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하고 발전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도 생활 속 하나의 습관처럼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을 꿈꾼다면, 청소년기부터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봉사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역사는 1995년 5.31교육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5.31교육개혁의 봉사학습의 주요 골자는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체계화된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교육을 실시하며,

정규교과 전체에 포함해 실시하며, 그중 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참가시간, 청소년 수련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케 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되도록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5.31교육개혁 이후 1995년 당시에는 교육개혁 발표는 있었으나, 학교 현장이나 자원봉사 현장의 사전 준비 없이 시작되어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고조되고, 학교 내에서만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확산하여 17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의무활동으로 인식되고, 입시과열 등의 문제로 인해 2019년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2024학년도부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도 '학교'라는 울타리로 제한하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를 통한 봉사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에 통합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정책 변경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 밖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급감하게 되었다. 통계청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 20대 미만 학생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9년 76.1%에서 2021년 23.3%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65 자원봉사 포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연인원이 2018년, 2019년 865만여 명에서, 2020년 281만여 명, 2021년 217만여 명, 2022년 160만 5천여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20대 미만 학생 자원  
봉사 참여율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간 학생 봉사활동의 의무 시행으로 비교적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으나,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민 참여 기회의 불균형으로 학생들의 인성 및 시민성 함양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활성화되어 온 학교 밖 자원봉사활동이 급감하게 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안내하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남았다.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학교 내의 활동과 학교 밖 활동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제도 내에서 인정하는 학교 내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왕이면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학생의 경우 15시간의 학교 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활동인 학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이다. 다만, 활동 인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은 시도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다는 점에서 지역별, 학교별 차이는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실적 중심의 활동에서 자원봉사 문화를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학교 담당 교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자원봉사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밖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학교 밖 자원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도 않고,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현장은 여전히 많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도서관 안내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으나, 필요한 인원의 50%도 지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의 의무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 관심이 떨어진 탓일지도 모르겠다.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던 이야기이다. 필자가 기억하는 세대에서는 어릴 적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자원봉사 현장이기도 하고, 나의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곳도 자원봉사 현장이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천하며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익히는 경험으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과 공동체성 등 인성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기 위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다.

### 자원봉사활동도 뉴노멀(New Normal) 시대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침체기, 정체현상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자원봉사의 흐름도 코로나19를 겪으며, 활동 방법과 형식이 다양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자원봉사 현장이기도 하고, 나의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곳도 자원봉사 현장이 되기도 한다

지고 있다. 특히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자제해야 했던 시기에는 대면활동보다는 비대면 활동, 개인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활동 방법 또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 영상 촬영(오프라인) + 홍보 및 배포(온라인)' 활동, '자원재활용 관련 교육영상 시청(온라인) + 재활용 수집 및 정리활동(오프라인)' 등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즉, 기존의 자원봉사 참여 방식이 대면성, 집단성, 공식성, 정규성이 원칙이었다면,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뉴노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원봉사계 또한 온라인 자원봉사와 같이 비대면성, 비공식성, 비정규성, 개인주의적 일대일 접근을 선호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 또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갈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 가정의 달 5월, '자원봉사 챌린지' 어때요?

이제는 의무적인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시간에 매여 소위 때우기식 자원봉사활동에의 접근이 아닌, 가족,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자원봉사 준비 단계부터 자원봉사활동 단계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도 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

그 대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챌린지 활동'이다. 활동의 주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독려 캠페인부터 줍깅활동, 환경지킴이 챌린지, 자원순환 등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도 있으며 친구, 가족이 함께할 수도 있다. 직접 자원봉사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대면활동, 온라인 비대면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밖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혹은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접속하여 활동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직접 활동을 신청할 수도 있다. ㉠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 교동도 喬桐島 시간 여행

교동도는 6·25전쟁 때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실항민이 모여 사는 섬이었다. 2014년 교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외딴섬이었기에 1960, 1970년대 풍경이 아직 남아 있다. 주민들은 교동도가 레트로 열풍을 타고 인기 여행지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사실 교동도는 실항민의 섬이기 전에 고려시대 향교와 조선시대 읍성이 있고, 조선 왕족들이 유배됐던 오랜 역사의 현장이다.



### 고향에서 찾아온 반가운 손님 교동 제비

교동도가 강화도 본섬과 교동대교로 연결됐어도 다리 입구에서 군인이 신분증을 확인한다. 교동도와 북한의 거리가 2.6km에 불과한 접경 지역임을 실감한다. 황해도 주민이 잠시 피난 내려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교동도에 정착한 세월이 어언 70년. 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고향에 돌아갈 꿈을 꾀기 때문이라고.

실항민들은 제비를 보며 향수를 달랬다고 한다. 제비가 고향 연백 땅에서 물어온 지푸라기나 흙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다. 주민 얘기를 듣고 지붕 밑을 유심히 살펴보니, 빈 제비집이 종종 눈에 띈다. 지난겨울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던 제비들이 곧 고향 소식을 묻고 다시 교동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비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 주민들이 그게 아쉬웠는지 교동 관광안내소 이름을 공모해 '제비집'이라 지었다. 방문자센터이자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1층에 강화 특산물과 간식거리를 팔고, 2층에 카페 씬터와 전망대, 교동도 역사 전시관이 있다. 교동도 여행 전에 제비집에 먼저 들르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쫄 수 있다.

- 1 대룡시장의 터줏대감 교동이발관이 있는 시장통 골목
- 2 100년 전 교동약방 나이환 할아버지와 꼬마 손님
- 3 대룡시장 뒷골목에 70년대 생활을 그린 벽화가 그려져 있다.



### 실향민들의 삶터 대룡시장

제비집 뒤편이 교동도 명소인 대룡시장이다. 6·25전쟁 때 대룡리에 피란민 연락소가 있어서 실향민이 자연스레 모여들었고, 골목 시장이 형성된 것. 아마도 고향의 연백 시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세우지 않았을까. 교동도가 오랫동안 외지인 출입이 통제되어 대룡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길이 300mm 정도의 비좁은 골목, 단층 건물들, 손글씨로 쓴 간판 등이 옛 시절을 박제해 놓은 것 같다. 이발소, 약방, 잡화점, 신발가게, 식료품점, 떡집, 다방 등 작은 가게들이 처마를 맞대고 열차 객차처럼 늘어섰다. 주말에는 시장통을 짝 메운 구경꾼이 꼬리잡기하듯 밀려든다.

대룡시장에서 소문난 떡집에 갔더니, 황해도 인절미인 '강아지떡'을 판다. 떡집 주인이 주문받는 즉시 찹쌀 반죽에 팔을 넣고 길쭉하게 빚어낸다. 콩고물 묻힌 떡을 가지런히 놓아두니 갓 태어난 강아지를 닮았다. 주인 말로는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 사람들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주려고 빚은 떡을 일본군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강아지에게 먹일 떡이라고 속인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떡집 옆 교동도 문화 체험 공간인 '청춘브라보'는 1950년대 초가지붕의 흔적을 간직한 건물이다. 대룡시장 대부분의 건물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나라에서 지급한 목재와 슬레이트로 고쳐진 터라 보기 드문 역사 자료이다.

50년 넘게 교동도를 지킨 교동이발소는 자녀가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바뀌었다.

- 4 조선 시대 교동읍성 남문과 일부 남아 있는 성벽
- 5 교동도 화개산 화개정원 안에 있는 연산군 유배지
- 6 교동향교 명륜당 뒷마루에 앉아 한적함을 즐기는 여행자
- 7 강아지떡집 주인이 청춘브라보의 문화공간에서 교동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발소 간판 밑에 달린 제비 등지 두 개가 할아버지 이발사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한다. 교동이발소와 역사를 같이한 교동 약방은 문이 닫혔다. 할아버지 약사의 안부가 궁금하다.

메인 골목을 벗어나 가지 친 골목으로 들어서자 정겨운 '그때 그 시절' 벽화가 기다린다. 벽화 앞에서 사진을 실컷 찍고 시장통 골목을 나선다. 시장 주변에 새로 생긴 농산물 직거래 시장, 카페, 프리마켓 부스로 활기가 넘친다.

### 교동도의 역사 유적지

폭군이라 불린 연산군은 교동도 화개산 자락에 유배됐다. 첩첩산중이었을 그곳이 지금은 모노레일이 지나다니는 아름다운 꽃밭 화개정원이 되었다. '연산군 유배지'가 새겨진 표지석 옆에 교동도유배문화관이 들어섰다. 교동도에는 연산군 뿐만 아니라 안평대군, 송선군, 임해군, 영선군 등 많은 조선 왕족이 유배됐다. 그 정도로 고립된 섬이었다는 얘기가.

화개산 남쪽에는 1629년(인조 7년)에 쌓은 교동읍성이 있다. 동·남·북쪽에 성문이 있는데, 흔적이라도 남은 남문만 복원됐다. 남문 한쪽에는 새로 지은 성벽이, 한쪽에는 허물어진 옛 성벽이 대조를 이룬다.

교동읍성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교동향교는 예상치 못한 보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인데, 오래된 건물에서 풍기는 멋스러움에 반했다. 홍살문에서 향교로 이어지는 가로숫길과 향교 마당에서 보이는 바다는 또 어땡고, 갈라지고 휘어진 명륜당 뒷마루에 앉아 봄별을 쬐는 순간이 소중하다. 홍살문 옆 지방 관직들의 비석 40개를 한곳에 모아 둔 읍내리 비석군도 인상적이다. ②



### 교동 제비집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남로 20-1
- 문의 032-934-1000
- 이용 시간 하절기 10:00~18:00/ 동절기 10:00~17:00 (매월 2·4주 일요일 휴관)

# 세계의 어린이날

**버**스 터미널이나 놀이공원 같은 곳에 가 보면 종종 요금을 소인과 대인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소인은 대개 초등학교 전후의 아동을 가리키고 대인은 성인을 가리킨다. 그 사이에 청소년이 있다. 그냥 어린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소인이라고 할까? 일본에서도 소인과 대인의 구분이 있는 걸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린이날

소인과 대인의 말뜻만 놓고 보면 소인은 아직 성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몸집이 작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어른의 구분은 다르다. 어린이는 단지 어른보다 작은 사람일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른에 비해 취약해서 특별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존재다. 옛날의 소인은 의무 교육이라는 것도 없었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는 대인 못지않은 노동에 노출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로, 그 개념은 근대 이후 생겨났다. 바로 이 같은 어린이의 인권을 인식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되새기는 날이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어린이날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근대화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의 역사도 항일 민족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함께 어린이를 민족의 미래로 길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어린이 운동에 헌신했다. 1921년 처음 제정된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으나 해방 후 5월 5일로 바뀌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남자 어린이의 날과 여자 어린이의 날을 따로 기념했는데, 오늘날은 5월 5일을 공통의 어린이날로 삼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여자 어린이날은 여전히 3월 3일에 따로 기념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 나라별로 다르게 기념하는 어린이날

가장 많은 나라가 어린이날로 기념하는 날은 6월 1일이다. 중국은 이날을 ‘국제 아동절’로 부르는데, 공휴일은 아니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많은 선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비가 일어난다고 한다. 중국 외에도 북한,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 등 47개 이상의 나라에서 어린이날은 6월 1일이다.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회의’가 제정한 국제 어린이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주로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거나 지금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기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사회주의 진영에서 정한 어린이날은 아니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표적인 서방 선진국들은 뜻밖에도 어린이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나라들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일찍부터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의식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20세기 초반 해도 이 나라들에서 아동에 대한 범죄, 아동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어린이의 보호와 교육에 관해 발전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하루를 정해 어린이를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어린이의 안전과 교육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이다.

## 세계 어린이날이 지닌 의의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어린이 문제가 없을 리는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어린이를 학대하고 해치는 문제는 빈곤한 지역과 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가 굶주리고 차별 받는 것은 물론 총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야 하는 나라도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이런 문제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1954년부터 세계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 어린이날은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11월 20일로 지정되었다. 선진국의 일원인 캐나다도 1993년부터 이날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다. 어린이는 단지 어른보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 보호와 보육이 필요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은 어린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㉞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 위기를 기회로, 교육개혁 3대 정책으로 변화 이끈다



교육부는 4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 개혁 핵심 정책과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하여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교육부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한 결과이다.

이 부총리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출생아 수가 1970년보다 1/4로 줄었지만, 예산은 그대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과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실현이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질 높은 교육·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한,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변화의 큰 틀이다. 그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글로컬(Glocal)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한,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 “지금 이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

교육부는 이날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외연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영상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국가 인적자원의 분야·지역·재능 균형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국가전략 분야인 국방, 과학기술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대학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균형을 찾는 것. 이 총장은 특히 재능 균형과 관련, “기술은 양날의 칼이지만, 디지털 교육은 새로운 기술로 아이들의 창의력, 역량을 꽃 피우게 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 초·중·고 졸업식에 교육부장관 ‘질문왕’ 시상, AI 골든벨 등을 제안하며 AI와 인간의 차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와 교육에 대한 각계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은 “한두 명의 리더, 천재를 키우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 탈 추격형 성장모델을 위해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병진 세트렉아이 이사회 의장도 “사용자가 아닌 창조자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설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형철 삼정 KPMG 부대표는 “한 가지 기술로 평생을 살 수 없다.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 업스킬(Upskill)과 새로운 스킬을 교육시키는 리스킬(Reskill)이 인재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며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전했다. ㉠

### 자유토론 참석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 박철우 한국공학대 기계공학과 교수 |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 김병진 세트렉아이 이사회 의장 |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박형철 삼정 KPMG 부대표 |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부용 경남연구원장 |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REPORT 01.

# 가까이 다가온 미래, AI교육 선도학교 고촌초등학교를 가다



학생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오랜 교육의 이상향이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공상과학영화 속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만 같았던 개인별 맞춤 교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는 다양화를 넘어서 '개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이끄는 모델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를 제시하고 있다. 하이터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긴밀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하이테크는 AI나 메타버스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의미한다. 두 개념이 결합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학생 각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각 개인에게 맞는 속도로 학습하여 모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적 이상향의 실현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 지원단 운영,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4년 1인 1스마트기기 사업을 통해 AI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AI 선도학교를 지난해 193교에서 올해 244교로 확대하였다.

경기 김포 고촌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부터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교생 680명 모두에게 크롬북이 제공되어 대부분의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 고촌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부장 및 AI 선도학교 주무 업무를 맡은 박동섭 교사는 교실 수업에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 교사의 교실을 방문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교사의 위치였다. 선생님은 교실 앞이 아닌 학생 옆에 있었다. 학생들은 칠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 맞게 배부된 수학 문제를 풀고, 즉각적인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수업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생 개개인이었다.

기존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습의 주체를 학습자로 전환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구현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진도 내에서의 학습자



중심일 뿐, 각자의 수준과 진도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교사의 교실에서는 이러한 개별화 교육이 첨단 기술과 접목되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틀린 문제에 집중하며, 다시 풀어보고 고민했다. 교사는 학생 옆에 서 있다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옆으로 가서 문제에 대한 피

드백을 주고, 함께 고민하는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사는 전통적 교수법인 티칭(Teaching)에서 벗어나 코칭(Coaching)하고 있었다. 고촌초에서 경험한 미래형 교실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척 가까이 다가와 있다. 앞으로 학생들은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②

### 박동섭 고촌초등학교 교사



**Q** AI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로 학교가 멈춘 2020년부터 관심을 두게 되었다. 영화에서만 보던 원격수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작업은 AI가 해결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기술은 그 이상이었다. 마침 도교육청에서 선도학교 공모를 진행 중이어서 지원했다. 3년째 AI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AI 수업을 교실에 적용하고 있다.

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상상하는 정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AI가 채점하고 대략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아직 개별 학생에게 맞는 진도와 각자에게 맞는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을 구성할 때 AI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주로 마지막 차시 단원정리에 사용한다.

**Q** AI 활용 수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학습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일일이 문제를 채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

**Q** 학교에서 AI 수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웨어 개발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훌륭한 AI 교수-학습 코스웨어가 주어진다면 학생들 각자에게 적합한 맞춤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연수도 중요하다. 교사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수업을 구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 축약이 일상이 된 10대

‘반 모’, ‘반박’, ‘존모’를 아십니까? 동아리 시간에 명진(가명)이가 정미(가명)에게 ‘반모 가능?’이라고 말하더군요. 동아리 시간에 웬 두부인가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에 정미가 명진이에게 ‘반박’이라고 말하더군요. 토론 시간도 아니고,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미는 이어서 ‘존모’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미가 선배지만 후배에게 ‘존나 못생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혼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미가 웃으며 설명을 해주더군요.

“선생님, 반모는 ‘반말 모드’, 반박은 ‘반말 모드 박탈’, 존모는 ‘존댓말 모드’라는 뜻이에요.”

신조어를 만드는 원리 중 하나는 축약입니다. 축약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조어법입니다. 황제는 삼황오제의 준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을 만들 때 준말 또한 신경 써서 만들어왔습니다. COVID-19 또한 Corona Virus Disease 2019의 준말입니다. 법과 언론에서도 준말을 상당히 사용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경제성 때문이지요. 그러나 10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준말을 사용합니다. 경제성도 있지만, 그들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까닭입니다.

공식적인 준말은 사용자와 수용자(듣는 이)가 모두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여러 상황에 사용하는 10대의 준말은 사용자와 수용자의 경제성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10대의 준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더 물어보거나, 준말을 이해하기 위해 검색하는 수고로움이 생깁니다. 다른 세대 간 소통에 축약된 신조어는 훨씬 더 비경제적입니다. 의미를 다시 묻고,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풀어서 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동아리 시간에 있었던 ‘반모’ 같은 일화는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대화를 종결해버리는 상황은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는데, 아직 학생들이 저를 단절하고 싶지는 않은가 봅니다. 휴~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3.23.)

#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 수업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 (신설)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